
저자 (Authors)	로국화 Ro Gukhwa
출처 (Source)	중국조선어문 (2) , 2020.3, 53-59(7 pages) Korean Language in China (2) , 2020.3, 53-59(7 pages)
발행처 (Publisher)	길림성민족사무원위원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23472
APA Style	로국화 (2020). 고려와 리조시기 조선어 관직명에 대한 고찰. 중국조선어문(2), 53-5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20/07/28 09:0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고려와 리조시기 조선어 관직명에 대한 고찰

◆ 연변대학 로국화(연구생)

[논문요지] 한 시대의 언어의 역사적인 변화 발전을 되짚어보고 이를 연구하는 데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현존하는 역사적 자료 만이 그 증거로 될 수 있다. 고대조선어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관직명을 고찰한 논문들은 몇가지 찾아볼 수 있지만 중세조선어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다. 본고는 《조선말대사전》에 나타난 고려와 리조시기 사용했던 관직명 244개를 통하여 중세에 나타난 관직명들로부터 중세조선어의 어휘구조 특성을 알아보고 어휘의 의미분석을 통하여 당시의 사회적 문화와 역사를 리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핵심어] 고려-리조어휘, 고유명사, 관직명

1. 서론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어는 선사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중고조선어, 고대조선어, 중세조선어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조선어로 오기까지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중세조선어는 10세기초에서 16세기까지의 조선어를 말한다. 중세조선어는 다시 전기중세어와 후기중세어로 나뉜다. 전기중세어는 10세기초에서 14세기까지의 조선어로서, 대체로 고려시대의 언어를 말한다. 후기중세어는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의 조선어로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까지의 훈민정음자료 시기의 조선어를 이른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시기에는 한자와 한문을 직접 사용하거나 한자차용법을 사용하여 어휘나 문장을 표시하였는데 어휘가 비교적 단일하며 그에 관한 선행연구 또한 찾아보기 힘든데 주요 형식은 인명, 지명, 관직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당시 한자어휘는 대체로 고유명사로 단일한데 송나라와 원나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어휘들은 전승한 것도 있고 참고하여 만든 것도 있다.

관직명이란 관직의 이름 또는 벼슬 이름을 말하는데 직을 담임하는 구체적 범위를 표시하는 칭호이다. 옛날 관직명은 《삼국사기》 직관지, 《고려사》 백관지,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증보문헌비고》 등에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순으로 각각 기록되어있다¹⁾.

본고는 조선어의 시초로 되는 관직명에 대한 분석, 고찰에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조선의 《조선말대사전²⁾》에 기록된 조선어 관직명 244개를 뽑은 후 그중 고려 관직명 109개와 리조 관직명 123개로 다시 분류하여 어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중세조선어 고유명사 그리고

1) 이용백 김원경 김선풍,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년.

2) 《조선말대사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어학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1992년에 편찬하여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간된 문화어 사전이다. 2017년에 최신판인 증보판이 나왔다.

당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관직명 어휘구조 특성

2.1 고려와 리조시기 관직명의 품계화

고려의 품계는 국초에는 독자적으로 마련되지 못하여 신라와 태봉국의 제도를 섞어 쓰다가 995년(성종 14년)에 독자적인 문무관계를 만들었고 문종이 집정시기에 17품계 29등급의 문산계를 마련하였다. 그 후 체제의 특징을 보면 2성 6부로 당나라의 제도에 가까웠고 또 중추원과 삼사는 송나라의 제도를 채용하였기에 관직명들 중에는 당나라 또는 송나라의 관직명을 본따거나 그대로 쓴 경우가 있었다. 또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등 관직명은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 생겨났다.

리조시기 관직, 품계는 고려시기를 계승 발양하여 18품 30계를 이루었다. 리조는 변방 출신 장수인 리성계와 서자 출신인 정도전이 세운 국가이기에 혈통으로 출세하던 이전의 조대들과는 달리 귀족사회가 아니라 관료주의적인 성격이 깊었다. 또한 신흥사대부들이 출현하면서 과거시험을 통해 관료를 임명하였기에 그 관직 또한 다양했고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품계도 세밀해졌다.

2.2 접두사적 관직명

좌(左), 우(右)

고구려와 백제에서 사용된 관직명 ‘좌보(左輔)’로부터 시작하여 고려와 리조시기까지 관직명들 중에는 ‘좌(左), 우(右)’를 접두사로 하는 관직명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좌가 들어간 관직명>

고려: 좌보간(左輔諫), 좌보궐(左補闕), 좌부승선(左副承宣), 좌부승지(左副承直) 등 18개.

리조: 좌자의(左咨議), 좌시직(左侍直), 좌보궐(左補闕), 좌복야(左仆射), 좌빈객(左賓客) 등 15개.

<우가 들어간 관직명>

고려: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우윤(右尹), 우첨사(右詹事), 우찬선대부(右贊善大夫) 등 4개.

리조: 우포도대장(右捕盜大將),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우윤(右尹), 우의정(右議政), 우찬성(右贊成), 우통례(右通禮) 등 6개.

고려시기의 관직명은 좌(左)를 접두사로 한 관직명이 18개, 우(右)를 접두사로 한 관직명은 4개 있다. 리조시기 좌(左)를 접두사로 한 관직명은 15개, 우(右)를 접두사로 한 관직명은 6개 있다. 량적 수치로 보아도 좌(左)를 접두사로 하여 사용한 범위가 크고 그 분야 또한 광범하고 많다. 또한 관직명들이 갖고 있는 품계로부터 보면 다음과 같다.

-좌보간(左補諫): 고려 때에, 중서문하성의 정6품 벼슬의 하나.

-좌보궐(左補闕): ① 고려 때에, 중서문하성의 정6품 벼슬의 하나. ② 리조 때에, 초기에 문하부의 정5품 벼슬.

-좌사윤(左司尹): 고려 때에, 왕비부의 정3품 벼슬의 하나.

-좌시직(左侍直): 리조 때에, 세자익위사의 정8품 벼슬의 하나.

-좌부술(左副率): 리조 때에, 세자익위사의 정7품 벼슬의 하나.

-좌사어(左司禦): 리조 때에, 세자익위사의 종5품 벼슬의 하나.

-좌사(左使): ① 고려 때에, 삼사의 정2품 벼슬의 하나. ② 리조 때에, 삼사의 정2품 벼슬의 하나.

-좌복야(左仆射): ① = 상서좌복야. ② 리조 때에, 초기에 삼사의 정2품 벼슬의 하나.

-좌빈객(左賓客): 리조 때에, 세자시강원의 정2품 벼슬의 하나.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① 고려 때에, 중서문하성의 정3품 벼슬의 하나. ② 리조 때에, 초기에 문하부의 정3품 벼슬의 하나. 1401년에 사간원을 내오면서 없었다.

-우윤(右尹): ① 리조 때에, 행정, 사법을 맡은 중앙관청인 한성부의 종2품 벼슬 또는 그 직에 있는 벼슬아치.

-우의정(右议政): 리조 때에, 의정부의 최고 책임관리인 령의정 밑에 있는 직위 또는 그 직에 있는 정1품의 고관. 령의정, 좌의정과 함께 3정승의 하나였다.

좌(左)를 접두사로 한 관직명들은 대부분 3품 이하의 관직명이고, 우(右)를 접두사로 한 관직명들은 3품 이상의 관직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리조시기 사용된 좌(左)를 접두사적 관직명으로 한 ‘좌사(左使), 좌복야(左仆射), 좌빈객(左宾客)’은 정2품 벼슬로서 절대적으로 좌(左)의 지위가 우(右)보다 높다고 절대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2.3 접미사적 관직명

1) 사(使)

-광정원사(光政院使): 고려 때에, 광정원의 우두머리 벼슬. 종1품에 해당한다.

-삼군총제사(三軍總制使): 고려 때에, 삼군도총제부의 한 벼슬. 모두 세명인데 재상급의 벼슬아치들이 겸임하였다

-상군사(上軍使): 990년대초 고려에서 임명 하였던 방어군사령관의 관직명.

-도관찰사(都觀察使): 리조 때에, 각도의 으뜸가는 벼슬 또는 그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 1467년에 도관찰 출척사를 고쳐 부른 이름이다.

-총리사(總理使): 리조 때에, 총리영의 우두머리. 수원류수가 겸임했다.

-통위사(統衛使): 리조 때에, 통위영의 우두머리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는 사람.

사(使)를 접미사로 하는 관직명은 고려시기 9개, 리조시기 10개 있는데 ‘삼사, 밀직사, 장정원, 풍저창, 광흥창, 의영고, 요물고’ 따위의 으뜸 벼슬이고 조선 전기의 ‘요물고, 풍저창, 제용고, 해전고’ 따위의 으뜸 벼슬이며 고려, 조선시기의 ‘목

(牧), 도호부’ 등 지방 관아의 으뜸 벼슬로써 사(使)를 접미사로 하는 관직명은 각 부문의 최고의 으뜸 벼슬임을 알 수 있다.

2) 윤(尹)

‘삼사좌윤(三司佐尹), 삼사우윤(三司右尹), 부윤(府尹), 세자좌서윤(世子左庶尹), 세자우서윤(世子右庶尹), 좌사윤(左司尹), 우윤(右尹)’

윤(尹)은 다스린다는 뜻의 한자로써 《국어초어상(国语楚语上)》 문헌에는 우윤(右尹)이 기록 돼있고 《송사·관직지육(宋史·职官志六)》 문헌에는 부윤(府尹)이 사용되었다고 기록돼있다. 이로부터 윤(尹)을 접미사로 한 관직명들은 송나라의 영향하에 산생되었음을 증명한다.

3. 관직명의 어휘 의미

3.1 고려시기 관직명

1) 송나라 제도를 채용

송나라 제도를 답습하여 제정된 중추원³⁾과 삼사⁴⁾에는 관직명이 총 9개가 있는데 ‘삼사좌사(三司佐使)⁵⁾, 삼사우사(三司右使)⁶⁾, 삼사좌윤(三司佐尹)⁷⁾, 삼사우윤(三司右尹)⁸⁾, 좌사(左使)⁹⁾, 추신(樞臣)¹⁰⁾, 판삼사사(判三司事)¹¹⁾, 판원사(判院事)¹²⁾,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¹³⁾이다. 고려의 삼사는 송나라의 삼사를 본따서 설치하였으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송나라의 삼사 관직에는 ‘좌삼사사(佐三司使)’가 있는데 이것은 송나라의 ‘삼사좌사(三司佐使)’와 해당되는 것으로서 송나라의

3) 고려시대 왕명 출납, 궁궐, 숙위(宿衛), 군국기무(軍國機務) 등의 정부를 담당하는 중앙 관청으로, 추밀원(樞密院) 또는 밀직사(密直司)로 불리기도 했다.

4) 고려시대 국가 전곡(錢谷)의 출납과 회계를 관장하던 기구.

5) 고려 때에, 삼사의 정3품 벼슬의 하나. 1362년에 정2품으로 되었다.

6) 고려 때에, 삼사의 정3품 벼슬의 하나. 1362년에 정2품으로 되었다.

7) 고려 때에, 1362년에 둔 삼사의 종3품 벼슬.

8) 고려 때에, 1362년에 둔 삼사의 종3품 벼슬.

9) 고려 때에, 삼사의 정2품 벼슬의 하나.

10) 고려 때에, 중추원과 추밀원의 종2품, 정3품 벼슬.

11) 고려 때에 삼사의 종1품 벼슬.

12) 고려 때에, 중추원, 한림원의 우두머리벼슬. 종2품에 해당한다.

13) 고려 때에, 중추원의 종2품 벼슬.

관직명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형식과 류형을 받아들이며 자국의 필요에 근거하여 관직명들을 사용하였다. 또한 중추원과 삼사에 소속되어 있는 관직명들의 품계는 대체로 높았다.

2) 세자의 교육 방안

세자첨자부란 동궁의 사무를 맡아보기 위하여 설치한 관아로서 충렬왕 3년에 설치하였다. ‘세자좌서윤(世子左庶尹), 세자좌찬덕(世子左贊德), 세자우서윤(世子右庶尹), 세자우찬덕(世子右贊德), 세자이사(世子貳師), 세자이조(世子貳調), 세자이호(世子貳護)’ 등 관직들은 고려 때에 1277년에 제정한 세자첨사부의 한 벼슬이며 그 관직들은 품계는 없었으나 대체로 1277년에 세자를 잘 보필하고 동궁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량의 동궁 관직을 두면서 생겨났다. 이는 1277년 임인일에 왕자 왕원(王諫)이 세자로 등극하면서 원나라의 공주를 안해로 맞이하는 등 일련의 사회적인 요소로 인하여 세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390년 공양왕 2년에 왕세자에게 서연(書筵)¹⁴⁾을 개설함으로써 세자를 교육하고 지도하는 관직이 대폭 증가하였다. ‘세자좌보덕(世子左輔德),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 세자좌사(世子左師), 세자우사(世子右師), 세자우빈객(世子右賓客), 세자좌필선(世子左弼善), 세자우필선(世子右弼善)’ 등 관직들은 고려 때에, 1390년에 제정한 동궁의 벼슬들인데 왕세자에게 도(道)를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관직이 새로 생김으로 하여 왕세자의 교육은 더욱 세밀하고 계통적이었음을 보아낼 수 있다.

이것은 문종의 문무정책(文武政策)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답습하면서 고려시대에는 문학을 승

상하고 유학을 장려하고 송나라의 선진 문화를 수입하는 단계였다. 세자의 교육 역시 나라의 국본이기에 세자의 배양에 힘을 썼음을 알 수 있다.

3) 무관과 문관의 관직명

통계에 따르면 고려 관직명 109개중 무관에 속하는 관직명은 ‘삼군총제사(三軍總制使)¹⁵⁾, 상군사(上軍使)¹⁶⁾, 선절교위(宣折校尉)¹⁷⁾, 선절부위(宣折副尉)¹⁸⁾’ 등 총 13개가 있는데 소수의 장관급 무관 관직명은 그 품계가 높지만 그외의 무관들은 대부분 정7품, 정9품 등으로 그 품계가 낮다.

무관을 제외한 그외 대부분 관직명은 모두 문관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특진보국삼중대광(特進輔國三重大匡)¹⁹⁾, 광록대부(光祿大夫)²⁰⁾, 광정대부(匡靖大夫)²¹⁾, 통의대부(通議大夫)²²⁾’ 등 관직명은 정1품, 종3품 등으로 대부분 높은 품계를 이루고 있다.

고려시기는 문(文)을 숭상하고 무(武)를 경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두 대립되는 문무관 사이의 관계가 더욱 첨예해졌다. 고려시기는 비록 문화가 번영하는 시기이긴 했지만 무관들은 장기간의 억압과 불만 속에 있었기에 반란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1126년 ‘이자겸의 난’을 시작으로 1237년 ‘이연년의 난’까지 백여년 동안 국세가 안정하지 못하였으며 그 틈에 1231년 몽골의 침입까지 당하게 되어 80년 동안 국가의 자주성을 잃게 된다.

3.2 리조시기 관직명

1) 친족에게 관직명을 부여

이 시기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15) 고려 때에, 삼군도총제부의 한 벼슬. 모두 세명인데 제상급의 벼슬아치들이 겸임하였다.

16) 990년대초 고려에서 임명하였던 방어군사령관의 관직명.

17) 고려 때에, 995년에 제정한 무관벼슬아치의 정8품의 옷품계.

18) 고려 때에, 995년에 제정한 무관벼슬아치의 정8품의 둘째 품계.

19) 고려 때에, 1369년에 제정한 문관벼슬. 정1품의 첫째 품계에 해당한다.

20) 고려 때에, 종3품 문관의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는 사람.

21) 고려 때에, 종2품 문관의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는 사람. 1275년(충렬왕 1년)에 금자광록대부를 고친 것이다.

22) 고려 때에, 정3품 또는 종3품의 문관 벼슬 등급의 하나.

14) 왕세자(王世子)에게 유학의 경전(經典)과 사서를 강의하던 교육제도. 이연(离筵), 주연(胄筵)이라고도 함. 서연이 처음 설치된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고려 문종 때 태사(太師)에서 시독사(侍讀事)까지 관직이 설치된 적은 있음. 예종 때 경연제도(經筵制度)가 도입된 사실에 비추어보아 일찍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임. 세자의 교육을 위한 서연제도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으로 정비, 계승되었으며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폐지되었음.

왕의 친족들, 거래불이들에게 벼슬을 제정하여 주는 것이다. ‘가의대부(嘉义大夫), 광성대부(光城大夫), 광휘대부(广徽大夫), 봉헌대부(奉宪大夫)’ 4개의 관직명을 뽑을 수 있는데 이 관직명들은 리조가 창건된 초기에 생겨난 것이다. 고려왕조는 권문세족이 발호하는 가운데 정치체제가 약화되고 왕권이 쇠퇴하였으며 이 시기 종친들이 나라의 주요한 권력계층이었기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건국초기부터 종친들의 품계를 4품제로 낮추고 권력을 약화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였다.

2) 녀성에게도 관직을 부여

리조시기 관직명들 중 녀성들에게 부여하는 관직명을 찾아볼 수 있다.

-상정(尙正): 리조 때에, 궁궐 안에서 일하는 궁녀들에게 주는 벼슬. 종6품에 해당한다.

-온인(溫人): 리조 때에, 왕의 거래불이로서 정5품 또는 종5품의 벼슬을 지닌 자의 처에게 주는 외명부의 벼슬.

-안인(安人): 리조 때에, 문관, 무관의 처들에게 주는 정7품 또는 종7품 벼슬.

비록 품계도 낮고 량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녀성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관리자로 되기 시작하였다는 뜻 깊은 징표라고 할 수 있다.

3) 교육체계

① 왕실 교육

리조시기는 ‘세자이사(世子貳师)²³⁾, 세자좌빈객(世子左宾客)²⁴⁾, 찬선(贊善)²⁵⁾, 익선(翼善)²⁶⁾ 등 왕세자를 교육하는 관직이 있었다. 이 관직은 정4품 이상이며 고려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품계가 올라가고 지위 또한 상승하였다.

② 지방 교육

리조는 유교사상을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으

로 하고 충(忠)과 효(孝)를 최대의 미덕으로 삼았다. 일부 사대부들과 학자들은 고향에 서원(書院)을 건설하는 추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변화로 관직도 따라서 생겨났다.

-교양관(教養官): 리조때에, 지방 고을에 소속되어 그 곳 량반 자식들에게 유교를 가르치는 일을 맡은 벼슬아치.

-례방(禮房): ① 리조 때에, 승정원의 6방의 하나. 예조관계의 일을 맡아보았다. ② =례방아전.

-훈도(訓導): 리조 때에 사역원, 관상감, 전의감 등 관청과 고을에 둔 정9품이나 종9품 벼슬 일체 때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초등학교 교원의 호칭.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구였던 성균관에도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 직강(直讲)’ 등 관직을 두어 진일보 교육에 힘을 썼는데 이는 교육자들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리조시기는 또 과거제도를 통하여 신분상승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에 대한 대중화와 보편화의 추세로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리조가 문학면에서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로 되었다.

3.3 관직명의 계승 발전

고려로부터 리조까지의 관직명들 중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고 새롭게 교체된 것도 있다. 고려와 리조의 관직명 244개 중 두 조대에 모두 사용된 관직명은 18개가 있는데 그중에는 품계가 변한 것도 있고 품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사용된 것도 있다.

계승

‘좌부승지(左副承旨), 좌사(左使),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좌습유(左拾遺), 좌승지(左承旨),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등 관직명의 품계와 명칭이 변화하지 않고 소속된 부문들이 변화하였는데 삼사는 삼사로, 밀직사와 중추부는 승

23) 리조 때에, 세자시강원의 종1품 벼슬. 의정부의 찬성이 겸하였다.
 24) 리조 때에, 세자시강원의 정2품 벼슬의 하나.
 25) 리조 때에, 세자시강원의 정3품 벼슬.
 26) 리조 때에, 세손장서원의 종4품 벼슬. 좌익선과 우익선이 있었다.

정원으로, 중서문하성은 문하부로 되었다.

‘세좌빈객(世子左賓客), 세우빈객(世子右賓客), 세자이사(世子貳師)’는 고려와 리조시기 모두 사용된 관직명인데 ‘고려시기 동궁, 세자첨자부의 한 벼슬’에서 ‘세자시강원, 성균관의 정2품, 종1품’으로 등급이 상승하였다. 이는 고려나 리조시기 세자에 대한 교육에 힘을 썼으며 품계의 상승으로 보아 리조시기 교육에 대한 열조가 더 높고 중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봉의랑(奉議郎), 제학(提學), 좌보궐(左補闕), 우윤(右尹), 익선(翊善)’ 등의 문관 관직들도 모두 한단계씩 품계가 상승하였다.

고려로부터 리조시기까지 변화된 관직명의 품계로부터 문반의 지위가 부단히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관직명은 력사와 시대의 발전 속에서 점차적으로 부단히 계승 발전되어왔으며 조대가 변하여도 관직명이 그대로 계승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전시기 존재하던 사회문화가 그대로 유지되고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4. 결론으로

고려와 리조의 관직명을 분류하고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국의 영향이 많은 듯했다. 우선 어휘적 특성으로 볼 때 관직명들 모두가 한자어 관직명이고 한자어접두사, 한자어접미사적인 관직명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오래동안 중국의 영향하에 산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기 독자적인 방식으로 그대로 관직명을 따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실정에 맞게 변형시키고 추가하면서 점차 체계화되어갔다. 고려와 리조 관직명들의 어휘 분석을 통하여 당시 문관을 중시하였고 교육자에 대한 사회의 태도가 점차 달라지고 과거제도의 영향하에 교육의 열기가 전국

적으로 높아졌다는 사회적인 현상도 가일층 입증할 수 있으며 리조시기에 와서 녀성들의 관직명도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는 녀성들의 지위가 상승하기 시작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관직명을 통하여 그 당시의 품계의 높고 낮음은 사회가 주도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자료가 된다.

이상 관직명에 관한 고찰은 두 조대의 력사적인 어휘적 특성과 문화적 현상을 완전히 대표할 수는 없으나 력사적 사건의 배경이 되고 언어와 문화를 리해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석윤, <신라 백제 관직명 어휘의 비교연구>, 《중양어문학회》, 1982년, 제16호.
 김상윤, <삼국의 고유어 관직명 어휘 소고>, 《어문연구학회》, 2012년, 제72호.
 김정택, 《국어 어휘론》, 탑출판사, 1992년.
 김운태, 《고려정치제도와 관료제》, 박영사, 2005년.
 리득춘 리승자 김광수, 《조선어발달사》, 연변대학출판사, 2006년.
 사회과학언어연구소,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2007년.
 한국어문학회, 《朝鮮前期의 言語와 文學》, 영설출판사, 1978년.
 한국어문학회, 《高麗時代의 言語와 文學》, 영설출판사, 1975년.
 이기문, 《新訂版 國語史概說》, 신학사, 2006년.
 이돈주, 《중세국어문헌》, 전남대학교출판사, 1994년.
 이웅백 김원경 김선풍,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소, 1998년.

《론어》 한국어 번역본의 오역양상 연구

◆ 곡부사범대학 백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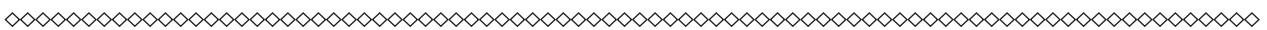
[논문요지] 본 논문은 번역학 이론과 방법을 리용하여 《론어》를 대상으로 한국어 번역본에 나타난 오역을 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중국의 고전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중국문화와 고대 한어에 대한 리해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오역 문제를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핵심어] 론어, 한국어 번역, 오역 분석

1. 머리말

‘중국문화의 세계진출’이라는 중국정부의 문화정책에 부응하는 경전 번역은 문화의 대외전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유교경전 문헌의 번역은 예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기울였기에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중국에서 번역된 책과 연구성과들은 대부분 영어와 관련된 것으로 한국어 번역본을 위주로 연구한 성과

는 그리 많지 않다. 한국에서는 유교경전의 연구 성과가 많은편이나 대부분 철학이나 문화와 관련된 것이고 번역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중국 문화의 전파에 있어서 번역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번역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한 작업이다. 지금까지 한국어로 번역된 유교경전은 많은데 본고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론어》를 선택하여 그 안에 나타난 오역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高丽、李朝时期朝鲜语官职名称考察研究

延边大学 卢国花(研究生)

[论文摘要] 现存的历史资料是回顾和研究一个时代语言历史变化和发展的有力证据。对研究高句丽、百济、新罗三国时期使用的古代朝鲜语官职名称的先行研究可以找到一些，但关于中世纪朝鲜语的参考资料极为少有。《朝鲜语大辞典》中出现的高丽和李朝时期官职名称共计224个，通过这些官职名称，可归纳出中世纪朝鲜语词汇的特点，并通过分析，对当时的社会文化和历史的理解提供帮助。

[关键词] 高丽-李朝词汇；固有名词；官职名称